

포기않는 화웨이, 美 제재 맞서 상하이에 반도체공장 세운다

미국 의존도 줄이고 자립 시도
2022년 5G 반도체 양산 전망
기술 수준·사업성 '미지수'

중국 화웨이가 거센 무역 제재에도 재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낮은 수준에서나마 사업을 유지하며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상하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세울 예정이다. 중국 국영기업인 화홍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상하이 IC&D 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화웨이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최근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를 우회 공급하던 통로까지 막아버렸다. 지난달 새로운 플래그십인 메이트 40 시리즈를 공개하며 견제함을 과시했지만, 차기 모델을 출시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계획대로라면 상하이 팹은 2022년부터 20나노 수준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화웨이는 미국 무역 제재에도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5G MEC 산업용 비전 솔루션을 소개하는 모습. /화웨이

수 있다. 우선 올해 45나노를 시작으로 내년 28나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시험 생산, 내년부터는 IoT 등 주변부 반도체에 이어 2022년에는 5G 반도체까지 양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더라도 기술 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28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2010년경부터 이미 상용화한 구세대 기술이다. 20나노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3나노 양산에 돌입하겠다

고 밝힌 상황,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성도 관건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율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규모의 산업이다. 화웨이가 이미 오랜 기술 개발과 노하우로 생산 능력을 안정화한 경쟁사들 수준으로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14%로 전분기(20%)보다 크게 하락



ASML 극자외선(EUV) 장비는 초미세 반도체 양산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미국 무역제재로 중국에는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ASML

하며 삼성전자(22%)에 이은 2위로 다시 밀려났다. 그나마 의지했던 중국 시장에서도 3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나 줄어든 3420만대로 고꾸라졌다. 4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경쟁사들도 화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뿐 아니라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최대 수혜 기업이 됐다. 오는 12일에는 중국에서 차

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1080을 공개하고 비보와 샤오미 등 현지 스마트폰 업체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이다.

단, 아직도 중국 반도체 굴기가 충분히 위협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도 반도체 육성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일본 반도체 업계도 변수다. 캐논과 니콘, 도쿄일렉트론 등은 여전히 미국에 비견할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꼽힌다. 극자외선(EUV) 장비만큼 미세하지는 않지만 비용이 저렴한 심자외선(DUV) 부문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ASML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화웨이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DUV 장비를 수출할 때 미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중국 SMIC는 7나노 수준 양산을 목전에 뒀음을 알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SMIC가 DUV 장비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달라진 음주문화... 위스키시장 판매 직격탄 BMW·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

코로나 여파 유흥시장 공백
흡수속 위한 소용량 제품
위스키 수입액 26.5% 감소

고급술의 대명사인 위스키 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흥시장 부진과 음주문화 변화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위스키를 탄산수, 얼음과 조합해 함께 마시는 '하이볼'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위스키 소비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유흥시장의 공백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술집 대신 집에서 즐기는 '홈술' '홈술'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위스키 수입액은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 2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위스키 수입량은 1만441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골든블루 사피루스 하이볼 패키지

비교해 1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위스키 수입액 역시 7447만달러(약 728억 5000만원)로 26.5% 급감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위스키 소비가 많은 유흥주점 영업이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입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위스키 판매량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위스키의 경우 고급술로 인식되며 소주와 맥주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술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달라진 주류 문화는 위스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인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도 위스키 판매량 감소에 직격탄이 됐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연간 위스키 수입액이 11.7% 급감했고, 2017년에도 8.2% 줄었다. 2018년 1.6%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려는 듯이 지난해 다시 0.7% 감소로 돌아섰다. 2018년 주 52시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3차까지 이어지는 저녁 회식 문화가 크게 감소하면서, 유흥업소를 이용한 접대문화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알코올도수가 높은 고도주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해지면서 위스키 수입이 줄고 있다고 식품업계는 설명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BMW·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

코트라, 외국인투자기업 온라인 진행

KOTRA(코트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BMW코리아, 이케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100개사가 참가한다. 기업홍보관, 실시간 채용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운영하며 구직자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다.

기업홍보관에는 BMW코리아, 이케아 등 포춘 500대 기업 21개사,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25개사가 포함됐다. 구직자는 홍보관에서 기업별 채용 절차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실시간 채용설명회는 인사 담당자가 기업별 채용정책을 설명한 후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가 이어진다. 심층면접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구직자는 누리집을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외부기업 취업전략, 영문이력서 작성법 등 특강과 이력서 첨삭 등 컨설팅도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공정위 기업 방어권 보장 '한국형 데이터룸'

자료 제공자 비밀보호필요성 존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을 만든다.

공정위는 한국형 데이터룸 설치와 증거 자료 열람·복사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 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통한 외부 변호사가 공정위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이 정한 날짜(최대 2주)에 데이터룸에 들어가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는 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밀 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간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고, 이때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한용수 기자 hys@

"AK플라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세요"

백화점 매장 최초

AK플라자가 11월 2일 백화점 전 점포와 AK& 2개 점포에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일괄 도입한다. 온라인몰이 아닌 백화점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결제가 가능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페이는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로, 네이버 ID만 있으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결제를 원하는 사용자는 '네이버앱' 우측 상단의 'N Pay' 버튼 또는 좌측 상단의 3선 메뉴를 클릭, 내 지갑 화면의 '결제하기' 메뉴를 통해 생성된 QR코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오프라인 결제 사용자는 포인트 뱃지를 통해 랜덤으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서비스 추가 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4배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AK플라자는 '네이버페이'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넓은 소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



략이다. '네이버페이'는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평택점 ▲원주점 백화점 전 점포와 AK& ▲홍대점 ▲기흥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